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윤여탁 · 최미숙 · 김정자 · 정현선 · 송여주 · 손예희**

< 차례 >

- I. 서론
- II.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교육
- III. 매체언어 교육의 성격
- IV.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 V. 논의를 마무리하며

I. 서론

국어교육의 주요 목표는 국어 능력의 신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개념은 언어에 의해 사람과 관계 맺고, 언어를 통해 비판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수용·생산하며, 언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communication)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술 문명의 발달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소통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 소통 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매체언어(media language)¹⁾를 통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와 방법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 윤여탁(연구책임자, 서울대 국어교육과) · 최미숙(상명대 국어교육과) · 김정자(경인교대 국어교육과) · 정현선(경인교대 국어교육과) · 송여주(경기 호평중) · 손예희(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함은 물론 매체가 생산하는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인 디지털 매체에서는 고전적인 매체를 소통하던 향유자를 수용자와 생산자로 나누어 구분하였던 2분법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 내에서 소통의 개념도 기존의 언어 기능 차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었던 소통에서 언어문화 향유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소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소통은 언어문화 능력 내지 언어문화 교육의 상위 개념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며,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 역시 소통과 소통을 통한 문화 능력 신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언어와 문화, 리터러시(literacy)와 소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은 현실적으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매체에 관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재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는 교사 교육과 연수를 통한 재교육에 대한 함의를 수반하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 매체언어라는 용어는 'media language'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또는 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어교육 차원의 개념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media'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매체라는 용어도 혼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II.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교육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현재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으로 매체언어를 수용하고자 하는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체와 국어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크게 개별 연구 논문²⁾, 보고서³⁾, 학교 현장의 논의⁴⁾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매체와 언어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가, 구분하여 이해할 것인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어교육에서 수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매체와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국어교육계에서의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문화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어교

- 2)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김대행, 1998)』, 『학교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실행하는 방안(이경화, 2000)』, 『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이채연, 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 언어 탐구(임천택, 2001)』,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김정자, 2002)』,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정구향, 2002)』,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민현식, 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정현선, 2005)』 등의 개인 연구가 있다.
- 3) 주요 보고서로는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김동환·이도영·염은열·서유경, 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최병우·이채연·최지현, 2000)』 등이 있다. 또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매체 관련 연구 결과물이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우한용 외, 2003)』,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김대행 외, 2004)』,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우한용 외, 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김대행 외, 2006)』 등의 공저로 출판되었다.
- 4) 『국어시간에 매체읽기(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2005)』, 『매체 교육의 길 찾기(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2005)』 등이 그 예이다.

육에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매체와 국어교육의 근원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의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교수-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된 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 매체언어 관련 교육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각 영역의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매체언어 활동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매체 활용 수준을 넘어서 매체언어 활동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알기,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물을 만드는 것 등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여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하나의 ‘언어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국어과 과목으로 신설된 ‘매체 언어’⁵⁾라는 과목에서는 매체언어 교육 내용을 심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고시된 국어과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의 내용 체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⁶⁾

5) 매체언어는 독자적인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매체 언어’는 교육과정 문서의 띄어쓰기 방식을 따랐다.

<p>매체 언어의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 매체 언어의 역할 · 매체 자료의 유형 	<p>자료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달과 설득: 뉴스, 칼럼, 광고와 사진, 기획물 (다큐멘터리, 특집) 등 · 심미적 정서 표현: 영상물, 대중가요, 사이버 문학, 만화, 오락물 등 · 사회적 상호 작용: 온라인 대화 등
<p>매체 언어와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언어와 정보 사회 · 매체 언어와 대중 문화 · 매체 언어와 인간 관계 	
<p>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심미적 향유 · 매체 자료의 창의적 변용과 생산 · 매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에서는 매체언어와 매체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매체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체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위해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체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 차원의 논의에서 매체는 일차적으로 언어적 작용과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탐구되고 있다. 이때 매체는 소통의 자료이자 의미 생산과 유통의 자료이고,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의 의미 작용, 소통 원리에 대한 교육이 된다. 즉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매체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인쇄 매체가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맡고 있는 것이다.

6)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121면.

Ⅲ. 매체언어 교육의 성격

1. 용어의 규정- 매체언어,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는 매체언어 교육에 대한 각론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를 전개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개념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하였다.

매체언어: 생활 속에서 언어의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국어교육이라면, 매체의 부분에서 국어와 관련되는 부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언어라는 용어와 국어교육은 잘 닿아 있어, 실제로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매체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매체언어라는 용어는 언뜻 언어와 그 재현에 관련된 부분만을 상기시켜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중요한 개념을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생산자와 수용자의 탈락은 문화적 부분의 탈락으로 입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어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매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체언어라는 용어에는 제한적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어학 관련 글에서는 매체언어를 논의할 때 용어 자체의 축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매체에 표현된 언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어의 범주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매체언어를 말, 소리, 글, 동영상, 이미지 등의 결합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언어의 수용 측면에서는, 그것이 ‘매체’이든 ‘매체언어’이든 ‘미디어’이든 간에, 국어교육적 사고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된 용어로 인해 외연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둔 채 말이다.

리터러시: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현재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특

성이 없는 용어로 보일 수 있다.⁷⁾ 이를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나름의 개념이나 용어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literacy’에 대한 역어로 ‘소양을 사용해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다른 과와 달리, 국어교육과는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는 문화적 범주로까지 나아가는 측면에서 기왕의 번역 용어인 ‘문해력/문식성’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리터러시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그 영역이 너무 좁게 형성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리터러시 형태 사이의 협력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필요한 고민은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컴퓨터로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통해 글을 쓰는 것과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글쓰기의 개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새로운 매체 시대의 리터러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 매체에서의 리터러시는 ‘복합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ies)⁸⁾’라는 분명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7) 컴퓨터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등 리터러시 용어의 쓰임새는 마치 문화라는 용어가 노동 문화, 음식 문화, 쓰레기 문화 등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범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다.

8) ‘복합양식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현대적 텍스트들이 언어 양식과 미디어가 함께 작용하고 특정 방식으로 통합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호체계를 아우르는 소통의 원리들을 수립하려는 사회기호학 이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현대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들은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악, 영상 등의 개별적인 언어 양식을 읽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된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A. Burn & J. Leach(2004), “ICT and moving image literacy in English”, R. Andrews

리터러시는 영상 매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리터러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안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만들어 내는 생산(창작)의 개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2. 언어와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간이 정보와 지식을 얻고 수용하는 언어 양식 자체가 다양해졌다. 이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언어 개념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언어에 대한 복합 양식의 관점은,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양식들이 모두 일정한 기호학적 원리들에 의해 작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실현에 초점을 두는 기능주의 문법(functional grammar)에 바탕을 둔다.

그 대표적 학자인 할리데이(Halliday, 1985)에 따르면 언어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즉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기호를 통해 표상할 수 있는 기능, 소통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텍스트를 조직하는 기능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⁹⁾ 이러한 할리데이의 언어 개념은 복합 양식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 언어 역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언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문자(자막)와 말(음성), 영상 언어를 포함한 복합 양식의 언어가 의미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d.), *The Impact of ICT on Literacy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Falmer, 154면.

9) M. A. K. Halliday(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의 이해와 표현 방식은 의미를 드러내고 전달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측면에서 초점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문·잡지·영화·텔레비전·인터넷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매체에서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기호 및 영상 언어와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작용에 관여하는 매체언어는 음성과 문자 언어 차원을 넘어서 기호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통합적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매체언어는 인간 소통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생겨난 다양한 매체의 의미화 양식들 또는 언어 양식들로서, 기존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영역을 넘어선 보다 넓은 의미의 언어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체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화 양식들(언어 양식들)이 특정한 형태의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적 형식으로서, 넓은 개념의 언어를 담는 형식으로 좁은 개념의 언어와는 구분되는 층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소통론의 확장

인간의 의사소통 역사는 주로 소통 기술의 측면에서 본 주요 매체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즉 언어의 발명,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마르코니의 전신 발명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은 문자 언어 등장 이전 시대, 문자 시대, 구텐베르크 시대, 전기 전자 시대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면대면 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 매개된 소통(mediated communication), 대량 소통(mass communic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⁰⁾.

먼저 면대면 소통에서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

재하면서 음성과 문자 언어는 물론 몸짓과 표정을 포함한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편지 쓰거나 전화 대화와 같이 매개된 상호작용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맥락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상대방에게 정보나 상징물을 전달하기 위해 종이, 전신, 전파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면대면 소통과는 달리 매개된 소통에서는 참여자들이 이용 가능한 상징적 단서들이 제한되는데, 편지를 통한 상호작용의 경우 몸짓이나 표정을 통한 상호작용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을 통해 문자와 이미지, 이성과 감성의 복합적 대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쇄술의 발명부터 시작된 대량으로 복제되는 소통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은 인간의 소통 방식이나 지식과 정보 교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이는 소수의 지식인이 생산하고 향유하던 인문적인 관점의 고급문화 개념에서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까지를 문화의 범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는 소통의 방식이나 양상에만 주목했던 평면적 소통 논의를 생산자(발신자)와 수용자(수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배자(보급자)라는 새로운 객체에 주목하여 생산-분배-수용이라는 다면적 맥락에서의 소통 논의로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통 상황에서 수용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촉 활동을 벌이는 분배자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되게 된 것이다.¹⁰⁾

10) 톰슨은 의사소통 매체의 상호작용 양상을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 매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 매개된 유사 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에 따라 소통의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이다.

J. B. Thompson(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82~87면.

11) 이와 관련하여 벤 애거는 현대의 문화 읽기가 '문화적 생산, 분배, 수용의 회로들을 이데올로기적이면서 정치경제학적인 용어들로 설명하는 사회 이론과 연결'지어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B. Agger, *Cultural studies as critical theory*, 김해식 옮김(1996), 『비판이론으로서의

또한 수용자 역시 이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산에 개입하게 되는 생산자로서의 수용자로 위상이 재정립되게 된다.

현대의 소통 논의에서 소통의 생산물은 하나의 상품일 뿐, 이것이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분배자의 적극적 개입이 소통 맥락상에 놓여야 한다. 또 생산물 소비자로서의 수용자 역시 차시의 생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매체언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소통론의 확장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문화 개념의 확대와도 관련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4. 매체언어 교육·소통과 문화 능력 신장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전화나 편지를 사용하던 이전의 학습자와는 다르게 현대의 학습자들은 변해 있다. 따라서 매체언어 교육 논의는 교실 안에 있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이 과연 어떤 개인적·사회적 경험과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매체나 매체언어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종종 성인은 논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라, 청소년은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숙한 소비자라 전제한다. 청소년 문화에 교육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은 청소년의 매체 활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검토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를 규정하는 고정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에서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으로의 인식 변화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라는 관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

태를 띠게 될 수 있고, 그것은 현대와 같이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기와 경계 짓기 모호한, 낮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매체언어 교육이 현재 교육의 주체이자 미래의 소통과 문화 주체인 학습자의 발달 변화를 전제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편 매체를 통한 소통의 양상과 작용은 세대별로, 또 미디어에 따라 다르다. 매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학습자의 매체 경험 역시 실은 아주 협소하고 제한적이다. 학습자들이 주로 관심을 맺고 있는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즉자적 흥미를 누릴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 컴퓨터 게임 등이고, 이러한 학습자들의 매체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도는 매체로부터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기성세대는 물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습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¹³⁾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매체언어 교육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 교사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다문화가정 학습자를 포함하는) 간의 차이와 갈등을 줄이고 문화 내 소통(intra-cultural communication)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2) 버킹엄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청소년이 매체와 맺는 관계를 낭만적으로 보거나 미리 재단하여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논의할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D. Buckingham,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정현선 옮김(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13) 다문화가정의 교육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IV.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본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팀은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켜 초·중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2, 3학년 학생들을 주된 학습자로 하는 매체언어 교재인 ‘매체와 국어교육(假題)’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집필과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매체와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2. 매체와 국어교육 논의의 현황과 쟁점
3. 언어와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4. 매체의 발달에 따른 읽기, 쓰기 방식의 변화
5. 매체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과 생산
6. 문학, 예술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7. 원작과 개작, 매체 간 변환의 문제
8. 디지털 저자의 언어 윤리 및 태도와 저작권
9. 청소년과 매체언어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목차로 요약된 교재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용

다양한 매체들은 언어와 문화, 국어의 표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기능 분담 또는 역할 재편이

이루어졌다.¹⁴⁾ 이는 새로운 매체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내지는 디지털은 비선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가 비선형적 사고는 아니며, 인터넷상의 글쓰기 또한 진정한 비선형적 글쓰기는 아니다. 인터넷상의 글쓰기 역시 생각의 논리가 있는 선형성을 가진 글쓰기로 볼 수 있다. 그 글을 읽는 독자는 머릿속에 선형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글을 이해하게 된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오히려 기술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체와 기록 방식 변화로 인해 산출된 글의 스타일 변화 현상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사용 방식 이외에도 소통 맥락의 변화로 인한 비판적(critical) 수용이라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매콤과 쇼(McCombs and Shaw)는 의제 설정 효과(Agenda setting effect)라는 이론을 통해 매체 논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유된 결과 이 논제가 공중의 논제 즉 수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논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였다.¹⁵⁾ 다시 말해 과거 매체의 영향을 논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것이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에, 나아가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까지에도 매체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력에 관한 한 학습자도 대중이 비판하는 바의 판단

14) 전자책, 편집, F9 리터러시 등의 새로운 방식의 출현과 기존의 방식 사이의 결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5)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22~240면에서 재인용.

력, 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들은 설득적 의도를 지닌 매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의 입장을 곧잘 취할 수 있고,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교사들은 이미 학습자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을 다시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¹⁶⁾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는 매체에 대해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학습자는 매체에 대해서 적극적 수용자이자 나름의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의 사고는 보호주의자들인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하다. 매체언어 교육에서 수용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학습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을 매체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이 아닌 중립적인 비판의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특히 동료 학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2. 생산(창작)

매체언어 교육에서 생산(창작) 논의가 수월해진 것은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new media)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든지 즐겁게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인터넷의 소통 구조는 기존 대중매체(mass media)의 소통 구조인 전달자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소통 차원을 넘어 쌍방향 소통 및 상호작용적 소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소통 주체 간의 상호적 의미 전달과 공유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16) 학습자가 지닌 이러한 비판적 성향에 대해 버킹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D. Buckingham, media education, 기선정·김아미 옮김(2004), 『미디어 교육』, jNBook, 175~200면.

그런데 소통은 서로 간의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즉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현하는 것만이 소통의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진지성이 결여된 채 놀이라는 개념으로만 인터넷에 접근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진지성과 놀이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지식을 계속적으로, 협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체언어 교육에서의 생산은 학습자가 매체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제작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그 과정에 직접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을 매체에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학습자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매체와 매체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생산은 학습자가 스스로 매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 제작이 되, 사회적·협동적 측면을 지닌 제작이 될 때 학습에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매체 제작 교육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할 경우 제작 교육은 기술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매체언어 교육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그러한 기술적 요건이 전체 매체 생산물에 작용하는 영향이나 수용자에게 주는 효과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에는 체계적인 성찰과 자기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매체를 학습자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매체 간 변환

원작과 그것을 다른 매체로 바꾼 작품을 바라볼 때는, 주종관계가 아닌

매체 간 변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 영화, 드라마, 만화, 광고 등의 영상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때 매체 종류에 따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하여 영상 문법 등을 교수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매체 간 변환을 바라볼 때 원작과 개작에 대한 학습자 수용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 등의 차원까지 확장하여 매체 간 변환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매체언어 교수 학습 활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다루는 매체 간 변환의 문제는 크게 서사와 서정 장르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서사 장르 측면에서는 서사 장르가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사에서 매체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매체에서 서사로의 변환이나 서사와 매체의 동시 제작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소설을 영화로 변환한 것뿐만이 아닌 영화를 소설로, 게임을 영화로 변환한 것 등의 다양한 매체 변환 양상과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 교육 현장에서 제작된 자료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서정 장르에서의 매체 간 변환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시와 광고, 시와 그림 등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 키치(kitsch)시, 시 레터(letter), 인터넷 시 낭송, 시화집 모음 등을 중심으로 시와 영상의 통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이를 매체를 통한 시 영역의 확대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매체 간 변환을 다룰 때 장르 중심 접근보다는 목표에 따른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즉 매체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활용을 넘어 새로운 매체가 가지는 원리에 주목하여 실제로 매체를 제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4. 저작권 및 윤리

인터넷은 단지 소통의 도구라는 수단적 의미를 넘어서 소통 주체들의 적극적 활동 공간인 가상공간을 출현시켰고,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소통 방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정적인 문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때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을 통한 집단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고발과 소문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유포되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여론 재판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체 자체가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을 동시에 매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가운데, 사적 영역에서의 수다 또는 하소연으로 그쳐야 할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소통 윤리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자동적이며 무책임한 즐거움만을 좇아 본래의 지시 대상과 기의로부터 분리된 기표들이 자유롭게 복제, 수정, 변형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6)의 용어로 표현하면 시뮬라시옹(simulation)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¹⁷⁾

개인이 쉽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매체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통 주체 스스로 소통 윤리에 대한 자기 검열을 강화해야 하며, 악성 댓글이나 정보의 무분별한 인용(펌질)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감시 의식을 갖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언어사용역(register)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자유로운 넘나들음으로 인해 생기는 장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경계가 여전

17) J.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옮김(1993), 『시뮬라시옹』, 민음사.

히 유효해야 하는 주제와 형식이 있음을 소통 주체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디지털 매체 시대의 새로운 문식성, 즉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이기도 하다.¹⁸⁾

이처럼 매체언어 교육에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와 텍스트 수용에 있어 저작권의 개념 및 소통 윤리는 그 실제 양상 분석을 토대로 소통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문제의 경우 최근에 와서 상업화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개념 범주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매체 저작권이나 윤리 문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같은 기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V. 논의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는 교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새로운 매체 시대에는 교육과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매체 관련 교재나 교수-학습 자료들은 끊임없이 생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매체 시대의 교수-학습에서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사의 발문 능력과 같은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사 교육 차원에서도 매체 관련 교수-학습 능력의 신장 방안과 관련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 시대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보다는 함께 배우는 자나 교육을 촉진시키는 촉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선이나 변화를 강요한다거나 훈계로 흐르는, 보호주의적 관점¹⁹⁾의 교사상을 벗

18) 정현선(2006),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제119호, 한국어교육학회.

19) D. Buckingham, 기선정·김아미 옮김(2004), 앞의 책, 27~31면.

어나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학생들의 비판적 자주성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거나 학생들에게 엘리트적 관점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떻든지 2007년 2월에 공포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매체 언어’라는 과목이 국어 교과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이 과목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매체언어가 국어 교과의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어 교사 아니 매체언어 교사가 매체언어 교육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대행 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동환·이도영·염은열·서유경(2000),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화의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자(2002),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미디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5),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제1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본 논문은 2007. 4. 20. 투고되었으며, 2007. 5.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7. 5. 29. 심사가 완료되었음.

-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우한용 외(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우한용 외(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 서울대출판부.
- 이경화(2000), 「학교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실행하는 방안」, 『한국어문교육』 제9호,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채연(2001), 「인터넷의 매체언어성과 국어교재화 탐색」, 『국어교육』 제10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임천택(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 언어 탐구」, 『새국어교육』 제6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국어 시간에 매체 읽기』, 나라말.
-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매체교육의 길찾기』, 나라말.
- 정구향(2002),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제6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5), 「‘언어, 텍스트, 매체, 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6),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제119호, 한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와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Agger, B., Cultural studies as critical theory, 김해식 옮김(1996),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 옥도.
-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옮김(1993), 『시뮬라시옹』, 민음사.
- Buckingham, D., media education, 기선정·김아미 옮김(2004), 『미디어 교육』, jNBook.

- Buckingham, D.,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정현선 옮김(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 Burn, A., & Leach, J.(2004), "ICT and moving image literacy in English", Andrews, R.(ed.), The Impact of ICT on Literacy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Falmer.
- Halliday, M.A.K.(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Thompson, J.B.(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국문초록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윤여탁 · 최미숙 · 김정자 · 정현산 · 송여주 · 손예희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언어와 문화, 리터러시와 소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은 현실적으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매체에 관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 능력을 재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구를 하였다.

국어교육 내에서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의 의미 작용, 소통 원리에 대한 교육이다. 또한, 매체언어 교육의 성격은 언어와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 소통론의 확장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는 소통과 문화 능력 신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은 매체의 수용과 생산(창작), 매체 간 변환, 저작권 및 윤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매체 시대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보다는 함께 배우는 자나 교육을 촉진시키는 촉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선이나 변화를 강요한다거나 훈계로 흐르는, 보호주의적 관점의 교사상을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학생들의 비판적 자주성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주제어] 매체언어, 매체언어 교육, 리터러시, 의사소통 능력, 문화 능력, 수용, 생산(창작), 매체 간 변환, 저작권 및 윤리, 촉매자

■ Abstract

A study on the intrinsic nature of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Yoon, Yeo-tak · Choi, Mee-sook · Kim, Jeong-ja
Jeong, Hyeon-seon · Song, Yeo-ju · Son, Ye-hee

This study is about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hat a viewpoint on language and culture as well as literacy and communication should convert. Also in actuality of receiving media education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atter related to reconsidering knowledge, literac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instructor is raised as an important point of issue. Related to thi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is subject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n education for understanding meaning action and communicative principles of media. And the features of media education can be examined according to a point of view about language and media, and extension of communication theory. Likewise, it leads the goal of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developing communicative and cultural competence. Thus this paper organizes receiving, producing(creating), translation between media, copyright and morals as contents for media education.

[Key Words] media language,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cy, communicative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receiving, producing(creating), translation between media, copyright and morals, facilitator